



대안신용평가와 낮아지는 신파일러 대출문턱

* (대안신용평가) 구매정보, 공공정보, 통신정보 등 非금융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

** (신파일러, Thin filer) 금융·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

- ◆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안신용평가에 기반한 신용평가시스템 (CSS) 고도화로 '23년까지 중·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추진
- ※ 카카오뱅크는 6.9일 新CSS를 적용, 중저신용자 대출공급량 두배 증가 (147억원(6.1~8일 실행분) → 293억원(6.9~16일 실행분))

□ (배경) ①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디지털 기술, ②코로나19 경제위기

- ① 데이터의 확산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 新디지털 기술의 출현으로 금융이력이 부재한 신파일러 고객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(Financial Brand)
- ② 코로나19 재정난을 겪는 차주를 과대평가, 회복중인 차주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는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(FinRegLab)

□ (특징)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신용평가를 보완하여 여신 접근성 향상

- (정확성) 채무불이행 위험 예측 등 보다 정확한 신용도 판단에 효과적
 -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기존정보와 대안정보를 결합할 때, 기존정보만을 분석할 때보다 채무불이행 예측 정확도가 높음(IMF Working Paper)
- (포용성) 소득, 인종, 자산격차에 따른 신파일러의 불이익 해소 가능성
 - 흑인, 히스패닉이 백인보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이 중 많은 이들이 非은행 고금리 대출에 의존(美 소비자금융보호국)
- (적시성) 최신 정보를 활용, 전통적 신용평가의 한계점 보완
 - 전통적 신용평가는 상대적으로 후행적 지표를 반영하는 반면, 대안신용평가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(Morgan Stanley)

□ (국내외현황)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신규고객 공략, 하반기 본격화

○ 주로 타기관과 협력하여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시장 개척 기대

국가	기관(협력)	하반기 추진 예정(내용)
미국	JP Morgan Chase Wells Fargo 외 8개 美대형은행	· 신파일러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 심사 승인을 위해 고객 예금 계좌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공유할 예정 ex. 타기관에 수신거래가 있는 무거래 고객의 신용카드 신규 심사가 가능해짐
한국	카카오뱅크 한국신용데이터	·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(CB) 예비허가 신청(6.25) ·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 예정

자료 : WSJ, 국내 보도자료

□ (중소기업) 창업기업·소상공인 등 신파일러 기업고객 여신거래 확보

○ 특히, 개인사업자 담보·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,

※ 담보·보증대출 비중(%) : '19.12월 74.6 → '20.3월 75.6 → '20.6월 76.5 → '20.12월 77.5

(자료 :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)

- 사각지대에 놓인 중·저신용 소상공인 여신을 활성화시킬 전망

※ (기존은행)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주로 담보대출을 제공
(빅테크) 대안신용평가로 중소기업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 가능
⇒ 은행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대출을 대체 가능
(Data vs collateral, BIS Working Papers, '20.9)

< 참고 : 중소기업 고객 대안신용평가 적용 사례 >

국가	기관	내용
미국	Paypal	· 중소기업 차주로부터 자동화 정보를 수집, 사업의 계절성·변동성 요인을 분석하여 만기 상환 시기 안내
한국	네이버 파이낸셜	·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중소기업 대상으로 비금융정보 (단골 고객 비중, 고객 리뷰, 반품률 등)를 활용하여 심사 ※ 대출 승인률 40%, 평균금리 5.5%
중국	MYbank	· 알리바바 산하 인터넷전문은행으로, '15년 설립 이후 2천만 중소기업고객에 대출, 80%는 은행 대출 무경험 신파일러

자료 : IMF Working Paper, Financial Brand, 네이버파이낸셜

□ (과제) 은행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기업대출까지 진출하게 하는 대안신용평가, 은행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

(작성자 : 경제경영연구실 대리 서지원 seojiwon@ibk.co.kr / ☎02-729-7609)

※ 참고

다양한 대안정보 활용 사례

※ 대안정보 시장 전망(억달러, GrandView Research) : 16.4('20) → 173.5('27°)

대안정보	활용 사례
모바일 기록	美 핀테크기업 Cignifi는 모바일에 저장되어 있거나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평가를 진행 (문자메시지의 맞춤법, 띄어쓰기 등을 신용평가에 활용)
위성 이미지	美 지리분석 기업 Orbital Insight는 인공위성, 항공사진을 AI로 분석하여 RBC, Deutsche Bank 등 글로벌 은행의 투자 결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(유동인구 규모 등 특정지역 경제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)
카드매출 정보	국내 카드사들은 보유한 매출내역 정보와 머신러닝의 결합으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중 (매출 실적이 좋으나 업력이 짧아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함)
SNS	싱가포르 핀테크기업 Lenddo는 SNS 활용도, 지인관계, 포스팅 등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평판 점수를 매겨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
공공요금, 통신요금	美 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인 PRBC社는 개인으로부터 통신, 전기, 수도 등 요금 납부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출 (이용회사명, 납부주기, 연체이력 등)
설문조사	美 핀테크기업 J.Score는 160여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AI로 분석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며, 질문 내용은 연봉, 고용형태, 소유 컴퓨터의 종류, 자주 가는 카페, 여행 경험 등 다양함
구매 결제정보, 포인트 적립 정보	SK플래닛은 11번가, OK캐쉬백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NICE평가정보와 공동 개발 물품 구매 경험이 많고,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활용도가 높을 수록 신용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

자료 : 각 사 홈페이지, 언론보도 종합